

세계기독교 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Vol. 27 No.1 통권 제 58호

December 2024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8)

WELCOME TO WCNF!

WCNF 회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환영합니다

북미지부 회원

수표는 WCNF 앞으로 쓰고 회원 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북미주본부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46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 (+1) (424) 426-5435
✉ wcnfusa@gmail.com
http: www.wcnfusa.org
Zelle: wcnfusa@gmail.com

호주 회원

📍 5019 Australia Avenue Sydney Olympic Park. NSW2127 Australia
☎ (+61) (417) 122-355
✉ wcnfaustralia@gmail.com
후원계좌: (Bendigo Bank)
예금주: WCNFA BSB 63300
Acct.#:16284735

한국 회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회원 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한국 지부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 066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 길 30, 910 호 세계 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 (+82) (02) 764-1227
✉ wcnfkorea@hanmail.net
https: www.wcnfkorea.org
후원계좌: (우리) 1005-902-610283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우리) 1005-103-276921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분납과 납부가 편리한 CMS(자동이체) 제도가 있습니다.

□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분들은 회보 등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혁 및 사업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은 간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 하고자 1998 년 미국 LA 에서 원로 기독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여 지역 사회 와 국가 및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교육, 봉사하는 것이 본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 1998 년 4 월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창립
- 7 월 연변과기대와 간호대학 설립협약서 체결
- 1999 년 5 월 연변과기대에 건강센터 개설 및 의사, 간호사 파송
- 2000 년 6 월 연변과기대 간호대학건물 기공식, 학술토론회 개최
- 2001 년 9 월 연변과기대 간호학부개교 및 교수파송
- 2002 년 9 월 연변과기대 간호대학건물 준공.
- 2005 년 12 월 캄보디아 캄뵕뵕에 누가 건강센터 준공, WCNF 제 1 진료소
- 2006 년 4 월 북한간호재건사업및 Vision1000 사업시작
- 2006 년 10 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라이프대학에 4 년제 간호대학 개설 및 교수파송
- 2008 년 5 월 한국-캄보디아 간호학술대회 개최, 간호대학에 실습기자재 전달(약 9 만불)
- 2009 년 6 월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 설립준비
- 2010 년 6 월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간호학 연구소 및 비전센터 준공
- 2011 년 10 월 이송희회장과 미주 지부장 평양과기대 방문
- 2012 년 캄보디아 캄뵕뵕에 유치원 및 예배당 건축지원
북한동포 생명 살리기운동(고아원지원)
- 2013 년 9 월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에 간호대학 설립, 간호학과장 파송
- 10 월 창립 15 주년기념 예배 및 영적각성 대부흥회 개최
- 2015 년 1 월 한반도 국제 통일간호학술대회 및 제 8 차 정기총회 및 개최
- 6 월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위원회 발족
- 9 월 평양과기대와 간호대학설립 협약서 체결
- 2016 년 1 월 남북통일대비 전략회의 및 기도회 (미국)
- 2016 년 9 월 북한의 홍수 피해지역에 이불과 진료소 복구비용 지원
- 2017 년 5 월 WCNF 제 2 진료소 (함경북도 광산촌) 착공 (공동 연대사업)
- 2018 년 1 월 창립 20 주년 기념 심포지움 (미국.LA)
- 2019 년 11 월 한국지부제 1 차선교대회 개최
- 2021 년 6 월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마지막 졸업식
- 10 월 WCNF 제 3 진료소 완공 및 봉헌 (캄보디아 모노롬)
- 2022 년 6 월 연변과기대 간호학부 20 년사 발간
미국내 간호대학생 15 명 장학금 지급
- 2023 년 1 월 제 12 차 정기총회 캄보디아에서 개최
- 8 월 콩고 부냐끼리 간호조산대학교 개교
WCNF Family Camp (Seattle, USA)
- 2024 년 7 월 고 이송희 이사장 추도식 (7 월 26 일 /서울, 8 월 3 일 /미국 Virginia 주 Fairfax, 8 월 17 일/미국 LA)

Table of Contents

04	총회장 인사말씀 - 안젤라서
05	한국지부회장 인사말씀 - 성영희
06	호주지부회장 인사말씀 - 천옥영
07	WCNF 소식
13	고 이송희 이사장 추모
19	추모사 - 박경원
25	추모사 - Kelly Kang
28	추모사 - Esther Kim
32	추모사 - Grace Kim
34	추모사 - 유숙자
36	추모사 - 김진경
37	추모사 - 김종양
38	추모사 - 김해준
40	추모사 - 구견회
41	추모사 - 장말란
44	선교 편지- 박순복
46	니제르 소식 - 서은성
48	캄보디아 Koica 사역 - 황옥남
50	<자유>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 김옥심
52	WCNF 선교 리더십 - 마리아권
54	신입평생회원 - 미주 및 한국지부
56	미주 및 해외후원내역
58	한국지부 후원내역
59	본부 및 각지부 현황



인사말씀

글/ 안젤라 서 국제본부 총회장

사랑하는 선교 가족 여러분들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을 통해서 하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넓혀 가시고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들은 ‘일’이 아니라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택한 자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교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헌신의 힘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4 년은 WCNF 를 설립하신 고 이송희 이사장님께서 이 땅 위의 수고를 마치시고 소천하신 잊지 못할 해 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 여종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소외되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딸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복된 소리를 듣게 되고 삶에 목적이 주어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항상 ‘종의 종을 섬기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주님께 믿고 구한 것은 받으신 것으로 믿었고 자신의 삶은 무척 검소 하셨지만 남들에게는 넘치도록 후하셨던 ‘믿음의 여인’ 이셨습니다. 삶의 우선 순위는 항상 하나님 분이셨고,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7 월 10 일 이송희 이사장님의 소천 소식 후, 이어지는 강한 애도의 물결을 보면서 ‘인간 이송희 이사장님의 삶은 참으로 보람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떠나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발 닿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의 빛을 전했고, 사람에 대한 진실한 배려, 검소와 겸손하심, 신실한 믿음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고 떠나신 이송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은 이송희이사장님의 믿음을 기초로 1998 년도에 70 세의 연세로 은퇴하신 후 오직 주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키워나가신, 이사장님의 분신처럼 사랑하시던 귀한 선교 단체입니다. 26 년이 흐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뿌리를 내렸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 위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문안드립니다

글 / 성영희 WCNF 한국지부회장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학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호다” (시 23:6)

세계 각지의 전쟁과 재해 등의 어렵고 위험한 환경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호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임상 현장에서 간호 대상자들을 간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회원님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문안드립니다.

청룡의 푸른 기상으로 활기차게 시작했던 갑진년도 많은 일 가운데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래에 없던 의료 대란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하여 우리 회원들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철주야 간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어려운 산고 끝에 통과된 간호법이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사들에게는 적절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힘든 세계 상황과 더불어 그동안 경색되어 왔던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남한을 적대시하며 수 없는 오물풍선 투하와 끓이지 않는 북한의 핵실험 시도로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북한 간호 및 평양과기대에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7월 10일 간호계의 큰 별이자 WCNF 설립자이신 이송희 이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을 접하고 모든 회원들은 충격과 슬픔에 싸였습니다. 한국지부는 이사장님께서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신 일생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7월 26일 회원들과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추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은 70세에 미국 LA에서 WCNF를 창립하시어 연변에 간호대학을 설립하였고 96세까지 캄보디아, 아프리카, 북한에 간호교육기관 및 진료소 건립 및 간호교육 및 선교활동을 지원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헌신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이번 추모의 계기를 통해 저희들에게는 마음속 깊이 주신 교훈을 되새기며 그분께서 물려주신 예수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소명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부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라며 슬픔에 싸여있는 유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글/ 천옥영 WCNF 호주지부 회장

살롱! 호주지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에 세워놓은 계획들을 하나씩 마무리 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WCNF 모든 회원님들이 함께 이룬 성과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는 사랑하는 고 이송희 이사장님을 떠나 보내며 깊은 슬픔과 아쉬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장님의 헌신과 삶의 자취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남겼으며,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가르침이 되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빈 자리는 매우 크지만, 그분이 남기신 값진 추억과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WCNF 가 될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고 이송희 이사장님의 열정적인 리더십,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힘쓰는 회원들의 진취적인 노력들이 협력하여 세계 곳곳에서 우리 WCNF 기독 간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절을 거꾸로 가고 있는 남반구, 호주 시드니의 WCNF 호주지부 회원들은 2025년 2월, 제 13차 총회에 오시는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북반구의 막바지 겨울바람에 모두가 움츠러들 즈음에 지구 아래 쪽 시드니에서는 따가운 햇빛과 태평양의 시원한 파도가 회원님들의 가슴을 활짝 열어 줄 것입니다. 2025년 2월 WCNF 시드니 총회를 통하여 서로가 더욱 협력하여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엡 4:1)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귀히 받아서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게 도우소서. 각 지체간에 서로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도우소서.

WCNF 소식

국제본부사역보고 (2024)

1. WCNF 홍보용으로 각각 영어와 한글로 된 Brochure 새로 발간함.
2. 2024 년 1 월부터 시애틀 YWAM 성경의 샘 센터에서 수고하시는 간사 3 명의 후원을 시작함.
3. 2 월 13, 14, 15, 16 (3 박 4 일) 회원들의 친목과 소통을 위해서 10 명의 회원들이 Las Vegas Marriott Hotel 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모임을 위해 박혜숙 이사의 부군이신 서승렬교수께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음.
4. 최지예 교수의 도움으로 WCNF 미주 본부 website 가 upgrade 됨. (Website address 는 wcnfusa.org 이며 Global WCNF 아래 USA, Korea, Australia 로 구분됨)
5. Cambodia 라이프대학 간호대학 강의내용을 PPT file 로 제작하여 보냄
 - 최지예 교수님이 Leadership and management in nursing 영어본 ppt file 보냄
 - Pediatric Nursing ppt file 은 한글본을 영어로 번역하여 보내고 있음
 - 성진숙 선교사님이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강의 하시고, 캄보디아 동료 교수님과 함께 모든 ppt file 을 캄보디아 언어로 다시 번역하여 사용하므로, 학생들 수업에 큰 도움이 됨.



라이프대학 수업



Palm Springs 세미나

6. 05/31/24 – 06/02/24 (금, 토, 일) 3일간 Palm Spring 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휴식 및 배움의 시간을 가짐. 마리아 권 부회장이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총 23 명이 참석함. 스피커로는 GMMA 선교리더인 DR. David Choi 가 “ 새 시대의 선교전략”에 대해서 강의했으며, 선교자문이신 한기원목사가 “WCNF 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제로 말씀과 재미있는 친교를 담당해 주심. 권 오정교수님이 “ Health Care in AI ” 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 주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냄.
7. 2024 상반기 뉴스레터 발간 (인디애나주 정귀남 지회장이 헌신함)
8. 뉴욕지회 전화연 지회장과 회원, YUST 간호대 졸업생 2명이 본부 회장단과 zoom으로 만나서 WCNF 홍보와 지회 발전 및 YUST 간호대 졸업생의 진로에 대해서 상의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짐.
9. 06/28/24 ~ 06/29/24 (금, 토) 양일간에 미국 어바인 베델교회에서 열린 협력단체 GMMA Conference 에 참여하여 WCNF Booth 를 열고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함. 회보, brochure 등으로 홍보를 했으며 다른 선교단체들과 유대관계를 맺음. Texas, Austin 주 지회장인 Gloria 박 교수가 GMMA 텍사스 오스틴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의 Mentoring 을 맡기로 함.
10. 고 이송희 이사장님께서 7/10/24 일 소천하심으로 8/3/24 일 Virginia 주 Fairfax 에서 가족 주치로 개최된 Memorial Service 에 많은 WCNF 임원들이 방문함. 미국 8명, 한국에서 성영희 한국지부회장, 장말란 부산지회장, 성진숙 캄보디아 선교사등이 함께 이송희 이사장님 추모예배를 드림. 8/17 일에는 원로회원 및 지인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L.A 근교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에서 개최함.



이송희 이사장님 추모예배 (8 월 3 일)



추모예배 (8 월 17 일)

11. 8/17/24 제 3 차 상반기 WCNF 장학금을 11 명의 간호대학생들에게 수여하였음. 장학금 시상식 후 학생 및 가족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짐.

12. 9 월부터 고 이송희이사장님의 아들 Dr. Timothy Park (박경원) 선생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함. Zoom 으로 하는 성경공부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달에 2 번 격주로 토요일- 서부시간 오후 5 시에 만나고 있다. 미국, 캐나다, Croatia (1 명 recording 으로 공부)에서 참석하며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음.
13.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Refugee 선교를 하시다가 추방당한 후, 현재 독일에서 Refugee camp 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성현, 조성이 간호선교사를 후원하기로 함.
14. 징검다리 리트릿을 2025 년 6 월 30 일 ~ 7 월 3 일에 제주도에 있는 제주 명성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 과테말라 단기선교를 은혜 충만하게 잘 다녀옴. 마야 후에 35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어린이 전도집회와 의료사역을 실시함.



과테말라 단기선교(8 월 3 일)



장학금 수여식

16. Act 2 Network Church (고 이송희 이사장님 장녀 Kelly 강 사모님 시무교회) 에서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 장학생 15 명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국제본부 정기사역

1. 국제본부 이사회 6 회 (홀수달 둘째 토요일 10AM)
2. 임원기도회 12 회 (매달 첫째 월요일 8PM)
3. Open to public 기도회 6 회 (짝수달 둘째 토요일 10 AM)
4.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아침 Q.Tin 교재를 이용한 말씀묵상 나눔 (선교위원회 주최)
5. 국제연석회의, 58 호 회보건 T.F meeting, 13 차 총회 TF Zoom meeting.
6. 매달 회원들 생일카드 발송함.
7. WCNF-징검다리 지회 모임 : zoom 으로 유미영 선생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매월 3 번째 금요일/토요일 (한국시간)에 하고 있음.
8. Tia Kim 과 함께 영어 성경공부를 징검다리회원을 대상으로 Zoom 으로 실시하고 있음.
9. 국제본부 서명룡 특별감사가 2023 년 재정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함

2024 년 한국지부 소식

1. 한국지부 총회 2024년 2월 3일(토) - 서소문 교회 본당 기쁨홀

임원 및 회원 35명이 참석하였으며, 1부 예배에서 정정우 목사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막: 15:21~41)을 주제로 말씀을 들은 후 캄보디아 라이프대학에 2023년 12월 단기 사역으로 성인간호학을 강의한 백석문화대 한숙원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2부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회무 보고 후에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광주 김정이 지회장의 인준이 이루어졌다. 권홍량 선교사님과 김태운 목사님이 참석하였다.



2. 2024년도 간호대학 졸업생 15명을 선정하여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함

3. 회장단회의 8 회, 임원회의 3회 개최

4. 국제회장단 연석회의 및 제13차 국제본부 총회준비 TF 미팅

5. 뉴스레터 SNS 전송

상반기 뉴스레터를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이메일 발송과 동시에, SNS로 전송하여 회원들이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임원기도회 및 PUST 한마음 기도회

✚ 임원기도회 개최(3월 15일, 9월 27일): 선교위원회 주관

✚ PUST 한마음 기도회: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PUST 총장님, 교수진 및 임원진과 함께 평양과기대와 간호대학 설립을 위해 기도회를 갖고 있다.

7. WCNF 홍보 및 PUST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활동

✚ 대전지회방문: 4월 24일

우송정보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에서 유숙자 PUST 간호대 설립위원장, 성영희 회장, 이갑순 PUST 간호대 설립 학장이 참석하였으며, 김현주 지회장을 비롯하여 우송대 교수 등 15 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희 회장이 WCNF 소개를 하고 유숙자 위원장이 PUST 간호대 설립 준비에 관하여 설명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충남 아산시 호서대학교 방문 : 4월 30일 성영희 회장은 오후 5시부터 2시간에 걸쳐 호서대 간호학과 교수들과 모임을 가지고 WCNF를 홍보하고, WCNF의 활동 및 PUST 간호대학 설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전남 지회 방문: 순천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오향순 지회장 및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교수들과 대학원 학생등 32명이 참석함. 성영희 회장이 WCNF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소향숙 부회장이 PUST 간호대학 설립준비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회 방문



전남지회 방문

8. 기독간호사 리더십 세미나: 4월 25일(목) ~ 5월 23일(목) / 총 5회 ON-LINE개최
주제 : 성경 속 인물 리더십: 사울, 다윗, 사도 야고보, 에스더를 중심으로 회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회 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5명이 수료하였다.

9. 선교세미나: 6월29일 - 서소문 교회

성영희 회장 외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직업과 선교”라는 주제로 OMF 한국 동원 사역을 맡고 계시는 손창남 선교사의 말씀을 들었으며, 2부는 캄보디아 모노롬 WCNF 제3 보건 진료소의 성진숙 선교사와 방글라데시 김현정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발표가 있는 후 회원들과 선교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10. 고 이송희 이사장 추도식: 7월 26일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연구동 강당

7월 10일 소천하신 이송희 이사장님의 추도식이 WCNF 한국지부가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동창회,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동창회,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 공동주최로 거행되었다. 임원 및 회원을 비롯, 110여 명의 국내외 조문객이 참석하여 슬픔 가운데, 소천하신 이송희 이사장님을 추모하였다.



11. 한국지부 회장단 워크숍: 10월25일 - 26일, 남산 서울유스호스텔

각위원회 별로 3차년도(2025년~2027년)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였으며 WCNF 한국지부의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자문위원단 구성에 대한 건 등에 대해 열띤 토의를 하였다.



회장단 워크숍



리더십세미나 워크숍

12. 리더십 세미나 워크숍 11월 5일 - ON-LINE개최

간호현장에서 가졌던영적 간호 및 복음전도 경험을 공유함

2024 년 호주지부 소식

○ 선교지 후원 :

1. WCNF 본부 선교사역 동참 / Eugene Bell 재단의 북한 결핵사업 지원
2. Vanuatu 장학금 지원: 선교센터 완공 및 e-교재준비/ 교육담당교사 확보 위해 기도 요청
3. 허윤경 간호선교사 (중국과 N 국) 지원: 현재 중국 체류중, N 국 입국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 활동 사항 :

1. 제 13 차 총회 (2024.2.32.6) 호스팅 준비
2. 정기모임 (3 월, 6 월, 9 월) 과 임원회 (2 월, 5 월, 8 월, 11 월) 를 가지다
3. 해외 선교사 시드니 방문 - 정성욱/김금숙 (Vanuatu :9 월) /신기조 (Cambodia:11 월)

약 력

이송희

(이사장)

1. 출생 및 가족

- 1928. 02. 01
부친 이경호 순회 전도사와 모친 김경신 권사 사이의 6 남매 중 막내딸로 평안북도 철산에서 출생하였다.
- 1959. 04
박병호 목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둬
- 2024. 07. 10
미국 피츠버그시 근교 그린스버그 소재 장남택에서 소천하심

2. 학력

- 1945
평북 신의주 남(南) 공립고등여자학교 졸업
- 1950
서울대학교 의대부속 고등간호학교 졸업
- 1956-1957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간호대학-간호교육 및 간호행정 연구 교환교수
- 197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3. 경력

- 1950. 05
서울대의대 부속병원 간호원입사
- 1950. 11.
간호장교 입대 후 제 2 육군병원 간호장교근무
- 1953 -1956
미국 텍사스 Brook Army Medical Center 파견, 훈련 후 (1953) 국군 군의학교 교관 등을 역임하고 1956년에 예편함
- 1956~ 1962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간호감독 및 간호과장
- 1962~ 1967
대한간호협회 총무, 이사 부회장
- 1965~ 1969
서울대의대 부속병원 간호과장
- 1970~ 1974
서울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 간호과장
- 1975~ 1997
1975 년 1 월 15 일 도미 후 미국 간호사 및 간호감독
- 1998~ 2024
세계기독교간호재단창립, 총회장, 이사장 역임

4. 업적

- (1) 저서: 병원간호업무행정, 간호사를 위한 영어회화
- (2) 번역서: 간호의 기본원칙 (대한간호협회출판부발행)
- (3) 서울대의대 부속병원 간호과정 재직 시 병원재건과 국내 최초로 중앙공급실 제도 도입 등 간호행정체계를 체계화함
- (4) 대한 간호협회 총무, 부회장 역임하며 간호사 대우개선과 권익옹호 증진
 - “김 간호원” 사건 : 의사의 order 에 따라 약을 투입한 간호원에게 부작용에 대한 책임 전가한 것을 불가하게 여겨 전국적인 간호원 두쟁을 이끌어 결국 사건에 관련된 간호원의 무죄, 무혐의를 얻어냄 (1966)
 - 간호수당제도 도입(1967): 간호사의 대우개선을 위해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건의문을 신문에 게재함(동아, 서울). 이 후 모든 간호사들이 간호직 수당을 받게 됨
 - 미국, 호주, New Zealand 교환간호원 Program 개발
 - 대한간호(기관지) 재발행, KNA 로고 제정. 최초의 국가시험문제집 발행, 전국

5. 수상

1951.11.23
화랑 무공훈장

2003.06.11
참전 유공자

2012.12.05
캄보디아 총리 수여 공로패

1952. 11.10
화랑 무공훈장

2013.02.21
국가 유공자

2015.10.16
제 25 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 수상

6. 선교 활동

- 70 세에 임상 간호사로서의 활동에서 은퇴하고 1998 년 4 월 미국 LA 에서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을 창립하고, 초대 총회장, 이사장 역임.
- 개발 도상국 등 간호발전이 필요한 국가의 간호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보건사업 시행, 기타 후원사업 등에 공적을 남기었다.

1) 간호교육사업

- (1)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은 중국 연변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에 가서 일할 간호인재를 양성하고자 1998년부터, US \$ 1.4 million의 기금을 모아 2002년 9월 5000평의 간호대학건물을 준공하였다. 2001년 간호학부를 개설하여 2021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학교 개설 후 교수진 파견, 교수 연구비 지원, 학생 장학금 후원, 실습기자재 지원, 내부시설지원, 간호대학생의 한국 실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문 교류 등을 지원하였다.
- (2)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라이프대학과 2006년에 간호대학 설립을 공동 합의하여 간호대학을 개설하였으며, 교수진 파견, 실습기자재 후원, 장학금을 후원하고, 또 일부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하도록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간호학 발전을 위해 간호학연구소와 비전 센터를 건립하여 교수진의 연구 환경 지원 및 실습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다.
- (3) 아프리카 스와질란드 기독교대학에 2013년 간호학과를 신설하여 교수진 파견, 기초간호학 실습실 기자재를 (40 feet container 분량) 지원하는 등 간호대학 운영과 발전을 후원하였다.
- (4) 평양에 간호대학을 설립하고자 추진중임
- (5) 한국-연변, 한국-캄보디아, 한국-스와질란드의 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간호를 알리고, 교류 국가의 간호학문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 지역사회 보건사업

- (1) 캄보디아 캄봉찜(Kam Pong Cham)에 2004년 성누가 건강센터(St. Luke Health Center)를 건립하여 운영과 후원을 하였다. (필요한 자원, 진료소 운영 간호인력 파견, 의약품 및 진료물품 후원 등)
- (2) 연변과학기술대학교내 건강센터를 1999년 개설하여 보건교사 파견 등 인력지원을 하였고,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보건사업을 실천하여 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센터 운영을 후원하였다.
- (3) 캄보디아 모노롬에 보건진료센터 건립
- (4) 2000년부터 북한구호사업
 - 나진 친선 어린이집을 후원하여 식량, 의료소모품등을 후원
 - 나진 무료진료소의 북한결핵퇴치 사업 후원
 - 평양미림학원의 고아들을 후원
 - 탈북자 구호와 북한동포 돕기 운동 참여



미네소타 연수



서울대병원
(미네소타 자문관과 함께)



번역서



대한 간호협회 임원과 함께



서울대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식(1973)



WCNF 창립(1998)



연변과기대와 간호대학설립 협약(1998)



미역 판매



연변과기대 간호대학건물 정초석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준공식(2002)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1회 졸업식



캄보디아 캄뵁짬 성누가 건강센터 기공식(2004)



캄뵁짬 성누가 건강센터 헌당식(2005)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대학 개교식 (2006)



라이프대학 간호대에 장학금전달(2006)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학연구소/비전센터 기공식 (2007)



에스와티니 식물원에서



에스와티니 간호분과 학술대회(2009)



WCNF 총회 및 영적부흥집회



평양과학기술대학 방문(2011)



평양 애육원 방문 (2012)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2015)



2017년 봄날에 수목원에서



WCNF 20주년기념 세미나 (2018)



추모글

글/DR 박경원(장남)

안녕하세요!

오늘 각처에서 저희 어머니의 소천을 기하여 천국 환송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 한국, 캄보디아, 그 외 외국에서 장시간을 비행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의 증거가 있는 있는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 삶의 몇 부분을 장남의 관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젠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게 언제나 가족의 뿌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시며 기억하라고 당부하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친아버지이신 외할아버지께서 덕수 이 씨의 문중으로 이순신 장군의 16 대손이심을 자랑 하시면서 제가 장군의 18 대 손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외할아버지가 살아오신 삶을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순회 전도자로 한반도의 험한 산들을 올라 다니시면서 산속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셨으며, 외할머니께서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내조하며 농사도 지으시고 무역도 하시면서 6 남매를 키워 내셨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송희, 즉 소나무 소녀라고 하여, 사시사철 늘 푸르게 변함없이 신실할 것을 복 빌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이, 어머니가 딤후 4:7-8 의 고백을 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신 신실한 용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형제 중, 제 1 장로교회에서 약관 32 세에 장로 임직을 받으셨고, 또한 제 2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던 제일 큰오빠, 저희 외삼촌에 대해 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제 1 그리고 제 2 장로교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머니가 평북 신의주에서 성장하실 즈음 두 교회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하시고 한국 기독교사에 이름을 남기신 목사님들이 목회하셨는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이 한반도 북쪽으로 들어오자, 제 2 장로교회 목사님이시던 한경직 목사님은 남쪽으로 피난 가시면서, 저희 큰 외삼촌에게 교회를 지켜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탁을 듣는다는 것은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기억 하시면서, 당신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일하시다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WCNF 의 일은 다른 분들이 운영하시게 하고,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리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항상 대답하시기를, 차라리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옳은 일을 위한 열정을 가진 분이셨던 예가 있습니다. 1963 년 즈음에 한국 남부 도시에서 의사가 지시한 처방대로, 한 간호원이 환자에게 약을 투약했는데,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의료사고가 있었지만 처방한 의사는 별 처벌도 없이 무혐의가 되었고, 오히려 투약한 간호원만 중죄를 선언받고 처벌을 받게 되자 아무런 관련도 없던 어머니는 중죄를 받아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그 간호원에게 일어난 일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인도 아직 30 대 중반의 젊은 간호원이었고,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전국의 간호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불의를 당한 간호원을 위해 싸울 결사대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결사대 대원들 모두 호텔 방에서 며칠이고 함께 머물며, 끝까지 투쟁하여, 결국은 그 간호원이 무죄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시를 받아서 투약하는 힘없는 모든 간호원들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간호사직에 자부심이 많으셨던 어머니가 서울대학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서 그분들께 간호사들의 애로를 알려 드리고 필요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추진하여 이루어낸 것이 바로 “간호수당 제도” 였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 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으신 어머니의 신앙관에 대하여 저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은 우리가 구하여 얻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고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창립 목회자이셨던 효성 장로교회에서 새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놓고 공동의회로 모이셨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난했던 그 상황에 건축기금을 모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를 하셨지만 저희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모 이 세분이 공회에서 그저 찬성 투표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결이 되어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세분을 기억해 봅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연변에 간호대학 건축을 위해 미화 백만 불을 모으신 후에, 하와이에 있는 한국 라디오 방송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건축기금을 모을 수 있었던 특별한 비밀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어머니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였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고 하셔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답을 하셨다고 후에 말씀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저희 가족들이 공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막내가 겨우 102 일 되던 날에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었을 때도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삼성 고려병원 과장자리도 포기하고 세 자녀 (14 살, 10 살, 4 살)를 데리고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프린스턴에 사는 사촌 집에서 짐을 풀고는, 뉴욕 플러싱에 친구 집을 방문한 첫날, 파슨스 병원에 취직하시고 병원 가까이에 아파트를 그리고 제가 다닐 고등학교도 찾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려 해도 더 나은 해결책을 구하지 못할 완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공급하신 배열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이 등교, 퇴교할 때 집에 계실 수 있기 위해, 어머니는 밤 일을 하셨는데, 낮에는 저희 삼 형제를 돌봐 주시고 밤에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생활을 하셨는데 밤근무를 위해 일 가기 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제가 깨워 드리면 출근을 하시곤 하던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잠이 들어 어머니를 못 깨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직장에 갈 시간이라고 재촉하셔서 늦지 않게 일을 갈 수 있었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늘 곁에서 지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주의 심판날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종종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는 땅에 있을 때에, 아이들 기르고 손주들 돌봐 주다가 왔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그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는데, 확실히 어머니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상과 꿈을 가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딸이 신랑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후 은퇴하시고 그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셨습니다. 영어로 은퇴를 re-tire 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해석하시기를 tire 를 바꿔 끼고 새로운 경주,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2012 년 2 월, 어머니가 84 세 이셨을 때, 어머니는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부에 초대를 받아 증거하게 되셨습니다. 시편 126편을 의역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WCNF 의 사역을 통해 큰 일을 행하셨고, 미래를 향해 어머니는 어떤 비전을 가지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간증 중에서 일부를 오늘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을 통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NF 는 1998 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소수의 은퇴한 한인 간호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첫행보로, 북중 접경지역인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택하였습니다.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훈련 시켜서, 그들이 중국 뿐 아니라 결국에는 북한에 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1998 년 우리는 연변과학기술대학 (YUST)으로 비전 여행을 가서, YUST 의 김진경 총장님과 양해 각서에 용감히 서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WCNF 는 책임지고 YUST 내에 간호대학을 건립하되, 첫째 학교 건물을 세우고, 둘째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며, 셋째 교수진도 모셔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는 데만 예산을 미화 백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양해각서에 서명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족과 친지, 그리고 교회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미역을 팔아 자금을 모았습니다.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첫행보로,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을 갖춘 진료소를 YUST 교내에 설립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 년 내로, 우리는 30 만 불 이상을 모금하였고, 간호대학 건물을 착공하였습니다. 2 년 내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교수진이 모였으며, 학생들을 입학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간호대학은 계속해서 간호대 학생들을 기독교 교수진에 의해 그리스도 중심적인 환경 안에서 교육시키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YUST 간호대학에서 졸업하는 간호사들은 중국 전체에서 가장 잘 훈련받은 간호사들로 인정받아 각처의 병원에서 초대해 가려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WCNF 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18-19 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58:6-7 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멍에의 줄에 매여 압제당하며, 주리고 빈곤하여 유리하며, 겨울의 추위 가운데에서도 헐벗은 우리의 혈육인가요? 그들을 멀리 보거나 부지런히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은 바로 휴전선 북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국의 군인들은 “알지 못하던 나라, 만나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에 와서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북녘의 동포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혈육입니다. 이사야 58:6-7 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은 북녘의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고, 식물을 나눠 주며 옷을 입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넘치도록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WCNF 에 대한 간증은 여기까지 이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자유를 얻는 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1971 년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에, 어머니는 그 비석에 다음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딤후 4:7-8).”

이 구절은 저희 아버지에게 진실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도 진실된 말씀입니다. 하늘 나라에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함께 우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리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글/ Kelly Kang (큰따님)

저는 어머니의 삼 남매 자녀 중 오빠 다음으로 태어난 큰 딸, Kelly Kang 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새기며 제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과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인생이 어려울 때 놀라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오시면서 서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며, 셋째인 동생이 태어난 지 102 일 만에 남편을 여의셨고 2 년 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2 년 후, 세 아이와 함께 뉴욕으로 이민을 오신 어머니는 무엇보다 먼저 외국인 간호사로서 1 년 안에 RN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는 병원 야간 근무를 하셨고 하루에 3-4 시간 밖에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동생을 정오에 유치원에서 데려와야 했고,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시고, RN 시험을 준비하고 밤 11 시에 출근하셨습니다. 오빠를 대학에 보내고 나서, 우리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10 년 동안, 어머니는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저녁과 야간 근무를 하셨는데 저녁근무는 오후 3 시부터 10 시 30 분까지, 밤근무는 11 시부터 다음날 아침 7 시 까지였습니다. 이민오신 많은 부모들도 저희 어머니와 비슷하거나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불평은 커녕 스스로에게도 연민을 보인 적도 없으셨으며 미국에 올 수 있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사신 어머니를 보며 늘 놀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여성이셨습니다. 1979 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조성할 때, 어머니는 \$20,000 을 작성하셨습니다. 당시 평균 주택 가격이 약 \$50,000 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작성헌금은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 결혼한 어머니는 결혼반지도 포기할 정도로 사역에 대한 열정과 검소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 직장 동료, 이전 직장 동료, 먼 친척들까지도 연락을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월례모임, 계절별 모임, 또는 연례모임에 참여 하였는데 좋은 음식과 많은 웃음이 항상 있었던 모임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바쁜 삶 속에서도 항상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은퇴하신 원로 한국 간호사들이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 WCNF) 선교단체를 설립한 후,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일을 지원하고 참여했습니다.

어머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친절에서는 비록 어머니가 가장 막내였지만 항상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모를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셨고, 이모는 제가 어릴 적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집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사업에 실패한 친정 막내 오빠를 항상 재정적으로 도우셨고, 그의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셨습니다. 그의 가족 6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과장이라는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직을 도왔습니다. 60 년대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어머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하여 소식을 듣는 대로, 그들이 직장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가 작은 교회의 가난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교통정리를 해야 했는데, 경찰들이 말하기를 어떤 권세 있는 장관이 별세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선교지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열정적이셨는데 너무 열정적이셔서, 어머니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제 어머니의 전화를 피할 정도라고 농담하셨습니다. 은퇴한 의료 전문인이려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준비한 슬라이드쇼를 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선교지에 간 많은 친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어머니보다 10 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은퇴한 의료 전문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노인들처럼 외로움, 무기력함, 자기 연민, 후회 속에서 살아가실 테니까요.

어머니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추모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하신 일들 중 제가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처에서 하셔야 할 좋은 일이 넘치게 많은 것을 보며 일에 바빠서 자신이 한 일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자만이나 자부심, 후회조차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꿈꾸며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 장 13-14 절)”**

엄마,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전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를 본받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Eulogy for Mom

글/ Esther Kim (차녀)

Towards the end of her life, I saw my mom resting more than I had ever seen her rest before. I think she was making up for lost sleep. In retrospect, I don't know when she slept. When I was growing up, she worked the night shift every day, yet she took me to school, picked me up, and spent time with us afterwards. She squeezed in 1-2 hours of sleep here and there. She worked every holiday and often worked two shifts consecutively to make ends meet. But when I was growing up, I was oblivious and made many demands of her.

My mother had me when she was 42 years old. A couple of days after my 100-day celebration, my father passed away, leaving her alone with my 10-year-old brother, my 7-year-old sister, and me. My mom always worked, supporting my father's church and her family, and she continued to work, leaving us in the care of our grandmother. When my grandmother passed away, my mother decided to move our family to the US. Little did I know how much she sacrificed for us and suffered because of me. I was not an easy child. While my brother and sister were very mindful of my mother and excellent in all areas, I was immature and selfish. I was awkward and did poorly in school. Somehow, I had a chip on my shoulder, even though I had nothing to complain about. Yet, my mom loved me and tried her best to help me. She was the only parent I knew, but I did not miss having another parent.

I remember asking my mom for money to buy stickers as was the fad, but she said no. Instead, a few days later, she told me she had a surprise for me. She had received a mailer from Publishers Clearinghouse and collected all the magazine stickers to give to me. I remember coming home crying when the kids teased me.



She comforted me, told me those children didn't know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and held me. If I felt badly about the way I looked—and people say that I look just like her, she would tell me, “Don't worry. When I turned 21, my skin lightened, I got an eye crease, and I grew taller. I tell you, in Korean culture, having a big nose and a big forehead means good fortune.” I took her seriously enough to peek my eyes open on my 21st birthday to see if this promise came true.

As you can see, I was rather disappointed. I remember telling my mom I wanted to go to an amusement park. She took just me to Knotts Berry Farm, and she endured a roller coaster ride with me. By then, she was already in her 50s, so she looked rather ashen. Needless to say, we went home after that ride. I remember dropping out of high school and moving out as a rebellious 16-year-old. I had been fighting with her and giving her a very hard time, and yet by the next day of moving out, she came to my apartment with a rice cooker, a bag of rice, kimchi, and cleaning supplies. She continued to pray for me, visit me, and remind me to go to church. When I wanted to finally return home and eventually to God, she paid off my debts and credit cards so I could make a clean break from the prodigal life.

She was a reflection of God to me. Through her, I learned that God was very real and that he is faithful. Even when I was far away from God, the consciousness of God she instilled in me protected me from going to a point of no return. She took God at his word, and she lived with his words as the only authority by which to live. She had many Bibles—all of them with well-worn pages. She was a very active and busy person, but she would sit still reading her Bible for long stretches of time. I can still picture her with her bifocals on the tip of her nose, reading her Bible and tearing pieces of paper to jot down notes and reminders of things to do from her private times with God. Through her, I witnessed our God who takes care of his children. It is one thing to hear stories of God's provision for the likes of Hudson Taylor and Amy Carmichael, but it is another thing to hear your 70-year-old mom telling you that God told her to drive around the country—by herself—to build a missionary nursing organization. As she depended on God as a single mother, so she depended on him to raise up nurses to be on mission wherever they served and to build teaching hospitals in China, Cambodia, and Swaziland.



I learned to be in awe of her God, my God, who is indeed so big and who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so easily. She had childlike faith and would remind me, “My Father is very, very rich.” Through her, I recognized that God is worthy of a fully surrendered life. She gave up her wedding ring and valuables for the sake of the church. I also saw her give money, counsel, and late nights to care for anyone in need. So many people have shared stories of how she was the one person who gave them the life-altering opportunity or who stood by them when everyone else abandoned them. She never let the hardships, discouragements, and loneliness get the better of her. She did not complain nor wallow in self-pity.

In many ways, she had died to herself a long time ago, and she forged ahead with a reckless abandon of this world. She engrained in our whole family a template to consider the cruciform life as a matter of course, to regard martyrs and missionaries as heroes, and to bring up the gospel as the main topic of every conversation. Through her, I realized that God continues to work in a person and through a person until the very end. She was strong, determined, and adamant in her ways, and yet she was soft-hearted and humble. Her last handwritten letter to me was a confession of what she had done wrong and for what she was sorry. Some say that older people are set in their ways, and they will not change, but I saw her reflective, penitent, and evolving even into her last years. Through her, I learned that God is the source of unconditional love and unlimited patience.

With that, my mom was also a mirror for me to see myself. Along the way, I realized that the true gauge of my spirituality and maturity was not by calling myself a Christian or serving in ministry. I could see how much I had changed and grew by how I was with her. I could think that I am being humble before God, that I am a good person, and that I sacrificed for the sake of the church and ministry. But I knew that my base self came out before my mom, who accepted me no matter what. I would think that I made some strides in my character and temperament, but then I would return to being a little girl throwing a tantrum with her.



I would be nice and accommodating to anyone else, but then I would be irritable and obstinate with my mom. I would give up my time and energy to serve at church, but then I would be lazy and let my mom serve me. Each time, she would absorb whatever I would dish out. So, after returning from being with her, I would get pricked to the heart and realize how much I am just a sinner. I would contact her and say I am sorry once again and she would forgive me once again. She had nothing but forbearance and love for me.

In later years, I loved her so much from the heart. We would sit, laugh together—she was really funny—and share stories. She told me about crying for her beloved dog that was killed when she was a young girl, missing classes in Minnesota because she was out fishing, her blushing for having a child at 42 years old, the challenges of raising three very unique children, her pride being all her grandchildren in ministry and serving professions, the wonder of her great-grandchildren, and the visions and dreams that God had given her. I loved her and admired her, but I still fell so short. Now that she is gone, I am so sad and sorry that I still did not have the maturity, capacity, and heart to care for her as she deserved and very regretful that I did not love her as much as she loved me. But even now, I can hear her say to me, “Tia, it’s OK. I love you very much.”

In honor of my mom, I want to read verses from Proverbs 31

An excellent wife who can find? She is far more precious than jewels.
She rises while it is yet night and provides food for her household and portions for her women.
She opens her hand to the poor and reaches out her hands to the needy.
Strength and dignity are her clothing, and she laughs at the time to come.
She opens her mouth with wisdom, and the teaching of kindness is on her tongue.
She looks well to the ways of her household and does not eat the bread of idleness.
Her children rise up and call her blessed...a woman who fears the Lord is to be praised.

[Proverbs 31:10-30]

Esther Tia (Second daughter)





Dear 할머니,

글/ Grace Kim (외손녀)

Many know you as Chairman Lee Song Hee, but to me, you are simply my 할머니 - my small, warm, and loving grandmother. You are a living example of a life boldly and faithfully devoted to God. Your unwavering faith, compassion, and humility touched every aspect of your life, leaving an indelible mark on the world and on my heart.

I vividly remember one trip to Korea when you and I passed by an elderly woman selling vegetables on the street. Most of her goods were bruised and unsellable, yet you bought everything she had. This simple act encapsulated who you were—someone who saw beyond appearances to recognize need and who always asked, “What if this were you?” Your apartment was modest, yet filled with back scratchers, nail clippers, and other items bought from struggling 할머니 s. I often overheard friends telling you how much your generosity had changed their lives, but you remained humble, always putting others first. You were like the grain of wheat in John 12:24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For decades, you quietly worked and prepared, gaining the experience and connections that allowed you to build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WCNF). What began as the efforts of a hardworking widow blossomed into hospitals, training schools, and Christian programs in places like Cambodia, Swaziland, North Korea, and China. Through tireless fundraising, selling seaweed, calling friends, and writing countless letters late into the night, you raised up nurses and missionaries who served faithfully without pay. Your work had a global ripple effect. During a college retreat in Virginia, I met two students who grew up at YUST.

They fondly recalled running through the halls of Life University dormitories and experiencing the joy of a Christ-centered community. Inspired by their childhoods, both plans to return to YUST after college to serve as their parents had at PUST and YUST. Stories of your impact seems to follow me everywhere, whether in a restaurant, an airport, or through strangers who exclaim,

“당연하지~~ 너 할머니 알지~~ 너 할머니가 되~~게 유명하잖아~~!!”

However, beyond your global legacy, you loved me in a way that was personal and unwavering. I remember in high school coming home crying. You held me tightly until I stopped crying, then gently reminded me of Jesus’ word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uke 23:34). You taught me to anchor my heart in faith and forgiveness. You also shaped my values through your example of simplicity and generosity. You wore modest clothing, saved carefully, and gave selflessly. Your purse always seemed to hold just enough to meet someone’s need. Like the widow in Mark 12:43, you gave everything you had, trusting God to provide. Even in your final days, despite immense physical suffering, you prayed aloud, “주님, 주님, be with me. I love you, Lord.” Your faith never wavered.

I miss you deeply, 할머니. I miss our walks, holding hands, sharing meals of 밥, 미역국, and 고등어, laughing together at the 목욕탕, and crying over historical dramas. I miss your stories and the way you made me feel like the most loved and precious. You didn’t just inspire pride in me—you helped me see that my life could serve a greater purpose for God.

It’s still hard to believe you aren’t here, and I feel the immense void you’ve left. But I also feel the strength of the legacy you instilled in me: love, humility, boldness, and a deep commitment to faith and service. As Matthew 5:16 says,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Your light shone so brightly, 할머니, and I pray to live a life that reflects yours—a life of unwavering love

and devotion to God.

I love you and miss you so much,
할머니, and I can’t wait to see you in Heaven.

Grace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이송희 이사장님께 삼가 이 글을 바칩니다



글/유숙자 전 연변과기대간호학부장

이송희 이사장님, 2019년 우리 곁을 떠나 자식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연세도 있고 하여 혹시나 다시 얼굴을 뵈을 수 없을지 염려도 되어 우리 한국지부에서는 송별회라 이름하여 이사장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 드리고자 명예로운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당신께서는 반드시 한국에 다시 돌아올 테니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극구 반대하시어 송별회도 갖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1998년부터 연변에 간호대학을 세우시기 위해 미국에 사시는 원로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을 창설하시고 미국 전역에 계신 간호사들과 교회들, 친지들을 찾아다니시며 연변과학기술대학 간호대학 교사 건축을 위해 모금을 시작하셨습니다.

연변과기대 간호대학은 선생님의 분신과 같은 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완도 미역을 팔아 학교의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데 앞장서셨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는 이 미역을 먹지 않은 교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도 그 미역을 교회며 동창회며 인맥이 있는 곳마다 다니시며 팔았습니다.

2001년 드디어 01급 신입생들을 선발하고 신입생 모두를 장학생으로 만드셨고, 그 후 계속하여 2021년 학교가 문을 닫을 때까지 학생들에게 WCNF 장학금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갈 때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숙식비를 지원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으며, 부모가 안 계시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교수들에게도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섬기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일정액을 매 학기 보조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남들이 입지 않는, 팬티 앞에 지퍼가 달린 특별한 팬티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연길에 오실 때는 그 곳에 돈을 두둑이 담아가지고 오셔서 우는 저희들에게 젖을 나누어 먹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연변병원의 간호사 두 명을 한국의 big 5 병원에 연수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사장님과 의논하여 프로그램은 제가 짜고 예산은 세계기독교간호재단에서 전체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하여 그들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좋아 다음 해에도 요청이 있어 두 명을 같은 프로그램에 연수를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의 통 큰 배려가 연변 지역사회의 임상간호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송희 이사장님은 YUST 제1회 졸업생 17명을 배출하여 동북아 시대와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과 북한에 간호지도자로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꿈 꾸는 사람이셨습니다.

평양과기대에 간호대학을 세워 북한주민들의 건강을 향상할 뿐 아니라 북한의 간호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려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떠나시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 ✚ 이사장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 ✚ 한국 간호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 ✚ 그리고 북한의 황폐한 제단의 회복과 북한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 ✚ 북한에 1000개의 진료소와 교회를 설립하시려는 꿈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를 결심하시고 남북통일과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에 참여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송희 이사장님은 생명이 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으시고 계속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송희 이사장님, 선생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들이 이사장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계승하겠습니다. 이제는 하시던 모든 일을 우리 후배들에게 맡기시고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 연변과기대 간호학부장

WCNF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위원장 유숙자 올림



이송희 이사장님 추도사

글/ 김진경 (중국 연변과기대: YUST), (북한평양과기대: PUST) 설립총장

이송희이사장님께서는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간호대학을 2000년 9월에 설립하셨습니다. 중국 교육사에 최초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간호사를 양육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송희이사장님의 추도식에 꼭 참석하여 추도사를 드리려 했으나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송희이사장님께서는 단순히 간호사가 아니셨고, 평생을 인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정신으로 헌신된 삶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귀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점을 축하드립니다.

이중에도, 이송희이사장님의 삶의 증인으로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간호대학에서 헌신하셨던 여러 교수님들은 이송희이사장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간호사님들께서는 인류의 생명을 돌보시는 이 땅의 천사들이십니다. 이송희이사장님이 계신, 천국에 후일 가시면 모두들 하나님의 상급과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추도금을 모두 북한사역을 위하여 쓰도록 드린다고 하시니,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사역팀들에게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또 북한인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이송희 이사장님



글/ 김종양(사진), 박상원 선교사(에스와티니 의과대학)

존경하는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이송희 이사장님 너무나 훌륭하신 이사장님을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뵈올 수 없다는 아쉬운 마음으로 유족 분들과 세계기독교간호재단 모든 가족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에스와티니 간호대학, 그리고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전 연로하신 이사장님께서 20 여 분의 간호사들과 함께 이 땅을 방문하셨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곳에 최초의 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 오셔서 의학과 학술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때 일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학을 정말 세우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사장님의 도우심으로 또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2013 년에 이곳에 간호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현재까지 300 여 명이 간호사가 양성되었으며, 금년부터는 이제 의학과가 개설되어서 6 년 후부터 이 나라에 기독교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사장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 년 제가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중곡동에 있는 한국중앙교회 선교관에 머물 때 직접 오셔서 위로하여 주신 이사장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뵈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김종양, 박상원 선교사가 인사 올립니다.



이송희 이사장님!

글/ 김해준목사 선교사(캄보디아 하베스트 뽀엘 선교 센터)

Praise the Lord! 이 송희 권사님의 (권사님과 함께 미국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90년대부터 함께 섬겨왔기에 권사님이 익숙한데, 이렇게 부름을 용서 하십시오.)

천국 입국 소식을 듣고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이 권사님이 부럽습니다. 이제야 그 오랜 세월 동안 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분주히 실천하시다가 쉴 수 있게 되셨군요.

이 권사님은 제가 캄보디아 캄봉짬성 뜨랑 나환자 마을에서 사역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1996년부터 수년간 이 권사님이 WCNF를 시작해 섬기시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양성 나환자들이 음성으로 바뀌어졌으나 그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 당시 500여명 뽀엘 학교 학생들 포함) 계속해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 사역자를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얼마되지 않아 저희 교회 신 정수 권사님을 교회와 함께 HMIC (Harvest Mission International Cambodia) 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신 권사님은 미국 Registered Nurse 로 은퇴하셨고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의 이사로 봉사 중이셨는데 주님 사랑의 실천자였고 신실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2004년 나환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권사님께 엘 샤다이 성서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진료소와 예배처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축에 동참하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건축기금조성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지역을 다니며, WCNF의 이 송희 권사님을 여러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이 권사님은 간호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참으로 창의적 방법으로 한국에서 완도 자른 미역을 수입해서 방문 교회 성도들 에게 판매했습니다. 선교 집회에서 남가주로 돌아와 당시 교회옆 사택에 생활하시며 WCNF 본부를 두고 계셨던 이권사님을 방문해 북가주 한인 침례 교회 주소를 물으시기에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북가주 한인침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저와 중/고등 학교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지금 자기 교회에 누가 방문했는지 아는가 할머니 부대가 고물 스테이션 왜건에 짐을 잔뜩 실고와 김 해준 선교사 소개로 왔으며 완도 미역 판매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와 인근 다른 교회에서도 미역을 모두 구입하고 추가로 주문도 했으며 참으로 놀라운 선교 동역자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진실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이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노방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걸어 다니며 전도하기 좋은 튼튼한 체력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영적, 육적체력과 강건함은 기도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진실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누가센터 (Luke Medical Clinic) 건축에 WCNF가 큰 재정을 헌금해 HMIC와 함께 건축 봉헌예배를 2005년 12월 9차 캄보디아 전도 집회 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와 식사 교제하며 은퇴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한국에서 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때라 많은 분들이 제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이 것은 제게 새 타이어를 달아 주시어 더 멀리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체구는 작아도 호탕하게 웃으시고 저와 동의하며 “그래 김 선교사와 1 백세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함께 섬기자”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고 먼저 주님께로 가셨네요.

아니 지금도 그 작은 몸으로 천국에서 종종거리며 여기 저기 분주히 중보기도 부탁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힘 있는 기도이셨고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권사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랜 세월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영생의 천국 삶을 누리십시오. 이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평안히 쉬시다가 나중에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하베스트 벨엘 선교 센터에서 김해준 목사/선교사



이송희 회장님을 추모하며

글/구견회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 총장)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발자취를 남기신 이송희 회장님을 추모합니다. 회장님은 작고 어린 체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도 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을 통해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이 세워졌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과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의 간호대학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북한 선교와 세계 여러 곳에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송희 회장님께서 라이프대학교에 간호대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시고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분의 첫인상은 시골의 인심 좋으신 할머니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우리 대학 본건물에 크게 세워진 십자가를 보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였고, 간호대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회장님은 간호대가 설립 되기까지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간호대학교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봉사하시기 위해 필요한 숙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간호대학 비전 센터를 세워 그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간호대 교수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을 주어 후원하셔서 기도로 보내 주셨습니다.

체구는 적으셨지만 큰 마음을 가지신 이송희 회장님, 그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선교지에서 간호대학들이 세워졌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기독 간호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58)는 말씀처럼, 이송희 회장님께서 남기신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는 헛되지 않았고, 하늘 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이 이 땅에 라이프 대학교 간호대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캄보디아의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품에서 안식하시는 우리 이송희 회장님을 다시금 추모하며,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기신 이송희 회장님을 저와 우리 라이프 대학의 교직원 일동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송희 회장님을 추모하며 캄보디아 라이프 동산에서 총장 구견회 올립니다.



이송희 회장님 추모사

글 / 장말란 (WCNF 한국지부 이사, 부산지회장)

먼저 우리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송희 이사장님! 지난 7월 10일 갑자기 이사장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언제 미국에 가서 뵈어야지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는 뵈 수 없구나 생각을 하니 그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송희 이사장님이 설립한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의 회보에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자유해방! 자유통일한국! 선교대한민국!”이 적혀 있고 대한민국의 지도가 분단조국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무궁화 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이송희 이사장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우리의 아름다운 리더였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사셨고 삶이 예배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이송희 이사장님에 대한 저마다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북한만큼 외롭고 불쌍한 나라가 있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순회 전도자인 아버님과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귀한 믿음을 전수받으셨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북한의 신의주이신데 이사장님의 오빠 중에 한 분은 신의주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지키시느라 남북한이 분단될 때 남한으로 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장님이 읽으시고 모아둔 여러 권의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읽으셨는지 여러 권의 성경이 모두 낡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처음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을 설립한 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첫 사업으로 연변과기대에 간호대학을 건축할 때에 100 만 달러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0 년 6 월 2 일 기공식 때에는 믿고 약속한 30 만 달러로 기공식을 하였고, 2002 년 9 월 2 년 3 개월 만에 100 만 달러로 준공을 한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건축기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신기하게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장님은 부군이신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고 혼자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미국 이민을 갈 때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훌륭한 미국의 인재로 키워냈느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는 말이 전부입니다”라고 답하십니다. 미국에서 직장생활과 공부와 자녀를 키우는데 처음 미국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어서 겨우 하루 2-3 시간의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자식에게 해준 것은 없고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다” 고 하셨습니다. 장남인 아드님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2 년 만에 마치고 Yale 대학에 입학하였고, Yale 대학에서 4 년 만에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UC San Diego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병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고, 큰사위는 버클리대학과 버클리법대와 신학 대학을 졸업, 또 큰 따님인 켈리 사모는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같이 Gracepoint Fellowship Church 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위도 버클리대학을 졸업, 스탠퍼드대학 교육대학원을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손자, 손녀도 모두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실로 놀랍습니다. 이송희 이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올 때 단 4 명이었는데 지금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 주셨어”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송희 이사장님은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선교일 하시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길을 지나는데 차가 이사장님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하마터면 치어 죽을 뻔하셨다고 하시면서 “선교의 일 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드님한테는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니 이런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은 이송희 이사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에 후원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누구보다 먼저 헌금하고 어머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의 미국 10 년 비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 주셨고 도움을 주셨는지요. 귀한 시간 내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그때 받은 비자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WCNF 총회나 집회를 할 때면 이사장님의 온 가족이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2015년 “제8차 총회, 영적각성집회 및 제1차 한반도 통일 국제간호 학술대회”는 이송희 이사장님의 사위이신 Edward Kang 담임목사님이 시무하는 Gracepoint Fellowship Church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집회동안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공항 pick-up부터 모든 식사준비며, 간식, 집회 전반의 음향준비, 녹화, 등을 perfect하게 해 주시고, 아드님께서 찬양인도, 손자는 기타, 손녀는 사진을 담당하여 온 가족이 동원되어 집회를 함께 했습니다. 요세미티의 아름다운 수양관도 제공해 주시고 ride, 요세미티 관광까지 제공해 주셨는데, 2016년 1월의 ‘남북통일대비 전략회의 및 기도회’ 집회 때도 산호세 수양관을 내주시고 모든 숙식 일체를 제공해 주셔서 집회를 잘 치르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사장님은 IMF로 부군 목사님이 졸업한 신학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집을 팔아서 학교를 후원하셨습니다. 서울대 간호대학에도 후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1997년 IMF로 어려움이 오고 가정들이 파산되는 등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좀 도와야 할까? 또한 북한동포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힘을 합쳐서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LA에 가서 1998년 4월에 세계 기독교간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북한에 직접 가서 쌀밥과 고깃국과 사과를 나누어 드린 적이 있으신데 배고픈 그들에게 실컷 먹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든지 어렵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가십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십니다. 이사장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워주며 격려와 용기를 주고 섬기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송희 이사장님이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으로 힘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선교에 충성하십시오. 민족의 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사명이며 지상명령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이송희 이사장님! 잠시 후면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 15:58)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사각오로 일편단심, 필사즉생, 역설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사셨던 이송희 이사장님, 많이 사랑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디 귀한 이사장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사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평안히 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평안의 안부를 전합니다.

글/ 박순복선교사(캄보디아 헤브론 간호대학)

엣그제 새 학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4 주 후면 학기가 끝나고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씨는 여전히 무덥고 많은 일로 지치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3학년 학생 중 19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말에 7개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양육받고 있습니다. 2 학년 여학생 Sophea 는 사영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언제 소그룹모임을 시작하는지 묻더니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 1). 학생의 오빠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월 \$250 급여를 받으며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입니다.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이번 학기 제 조카가 보내온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학기에 3 학년과 2 학년 여학생 두 명을 마음에 품고 때를 기다리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3 학년 학생은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고, 2 학년 학생은 "I will think about it"이라고 반응하기에 기다렸는데 그 말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거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을 주저했던 학생들 3 명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번에 강적들이(?) 나타났네요. 그런 중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엣그제는 밖에 살고 있는 3 학년 남학생이 (Virak)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어제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진 2). 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매 학기 오셔서 해부생리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9 월 24 일 휴일에는 프놈펜에서 고속도로로 2 시간 반을 달려 바닷가로 기숙사 소품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6 시에 출발하는데 여학생들이 파티에 가듯 옷을 차려입고 나타나서 어리둥절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의 문화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는 옷을 갈아 입어 다행이었지요 (사진 3).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의 '모유사랑'에 학생들이 쓴 감사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일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주위에서 찾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또 재정후원으로 함께 해주시어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10.14. 박순복 드림



사진 1



사진 2



사진 3

서은성 · 김민선 선교사 니제르 소식



저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 활동하는 지하디스트들의 연쇄 테러가 니제르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시내 곳곳에서 경찰들의 삼엄한 검문검색으로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일어난 쿠데타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니제르 땅에 평안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된 살롬을 전하며

서은성 선교사가 얼마 전에 모슬렘 여성 R과 성경 공부를 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안식”을 전하였습니다. 나누면서 아마도 이 여성은 단 한 번도 인생의 고단함을 누군가에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소망을 찾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의 하루하루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들려오는 기쁨과 간절함을 부르는 소식

김민선 선교사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다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가족을 이룬 모슬렘 청년 M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천 여성을 만나 결혼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가 늘 기도와 소망으로 남아 있듯이 그에게도 우리가 그리움이고 가족 같은 친구인 거 같습니다. 복음의 진한 흔적이 그의 마음에 영원히 존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네 아저씨처럼 함께 해 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함께 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없는 거 같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웃다 보니 이 순간보다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니제르 주소: Min-Sun Kim, (SIM, #9 rue de Tarka) B.P. 10065, Niamey, Niger
카톡 ID : bonjourniger (김민선) / minsunkim7@gmail.com



D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편지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모슬렘 청년 D는 김민선 선교사와 지속적으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많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성경공부를 위해 나타나는 그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더 이상 진실할 수 없을 만큼 진실한 신자가 된 제자

서은성 선교사가 개인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양육을 하였고 이후 이웃나라로 유학을 간 자켈린 자매가 니제르에서 인턴쉽을 하기 위해 잠시 돌아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유학하러 가기 전 거의 3년 동안이나 서은성 선교사와 기독교 교리로 개인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서적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었던 자매입니다. 잠시 니제르에 있는 동안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며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은 저희의 사역에서 가장 바라는 모습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감사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해

서은성 선교사의 학교 사역이 지속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이번 해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고 곧 열리게 될 성인반에서도 성경 티칭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전교생 대상으로 사도신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간에 찬송가 가르치기 사역을 통해 예배 찬송의 갱신이 진행 중이고 사도신경의 진실한 고백을 위해 매주 찬송가 시간에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의 몸 된 교회가 이 위대한 신앙고백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에서 왔습니다. 이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 이야기

지호는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더 공부하며 연구자의 길을 가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와 연구를 함께 감당하느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나는 여름 방학 동안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 과정을 잘 마쳤고, 현재 대학교 3학년 과정 중 시간제 인턴십을 하며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나 둘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신자로 그분의 영광이 최고의 소망이 되어 살아가기만을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2024년 10월 서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서은성 / 김민선 선교사 드림



캄보디아 Koica 사역

글/황옥남 project Manager(한국지부 부회장)

저는 35 년 동안 대학에서 근무하고 2020 년을 정년으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제 2 의 인생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온 삶이었다면 남은 제 3 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어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10년을 봉사하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퇴임 마지막 해에 공로 연수를 받아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의과 대학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제 사역지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전북대학교 양영란교수 (라이프 대학에 파송한 첫 선교사)의 제안으로 NCD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 22 년에 캄보디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이카 민간협력사업으로서 전북대학교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함께 컨소 시엄으로 운영하며, 저는 현지 Project manager 로 3 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1 단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3 년간 시행할 수 있는 2 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매해 1,000 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NCD 관련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고혈압, 당뇨 및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마을 별로 자조그룹인 건강생활클럽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건강을 향상하도록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차별된 전략으로 의료정보관리를 위해 모바일 앱을 (mHealth system) 개발한 것입니다. 앱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건강 정보를 추적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건강생활클럽 주민은 약 600 명 정도 됩니다. 코이카 사업에서 엄격한 종교활동 제한과 저의 언어 장벽으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면 더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작은 몸부림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인들이 준 후원금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하고, 운동 시 필요한 운동화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 단순한 말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은혜인지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등 이곳 보건부 및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순간순간 닥치는 문제들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기도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그리고 막연했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 섬세하게 터치해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분주했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좀 더 주님의 마음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역사가 이곳 주민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해 주민 1000여명에게 건강검진 수행모습



당노식이 실습교육 모습



마을 순회 주민교육 모습



매일클럽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자유>의 땅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글/김옥심(통일간호의 징검다리 회장)

올해는 제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에서 2년, 강제 북송되어 북한에서 1년을 보냈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남한에 왔으나 저에게 3년이라는 탈북의 기간은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있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과 단기선교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 배움의 자유, 노동의 자유, 결혼의 자유가 보장되는 말 그대로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중국의 신앙공동체도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친교와 나눔이 있는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의 삶이었습니다. 남한에 와서도 주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의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특히 학업을 따라가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대학교는 발표수업도 종종 있는데, 남한 억양에 익숙하지 않고 무엇보다 적절한 어휘를 골라서 쓰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영어가 어렵다고 해도 가장 어려운 건 남한말투로 발표하기, 글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통일간호의 소명"을 주셨는데, 과연 졸업은 할 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자존감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신규간호사 때였습니다. 업무량도 과다했지만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점점 저의 신앙은 바닥을 쳤고 감정도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메마른 풀이 겨우 뿌리를 붙이고 살다 보니 "통일간호의 소명"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일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와 항상 함께하심을 믿고는 있었으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번 낮아진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앙의 끈을 놓아 버리지 않은 스스로가 기특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에서 북송의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 왜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AI처럼 빠른 답을 주지 않으셨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극형의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해가 되고 큰 감동과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저의 존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학업에서도 실력과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보건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8월에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9월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국내연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경험과 시련을 통해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기다려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죄의 유혹도 많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며, 자기 합리화로 상황을 회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의 약속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에 꼭 붙어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회복할 뿐 아니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WCNF와 통일의 징검다리 모든 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WCNF 선교 리더십 RETREAT

글/ 국제본부 부회장 권 마리아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캘리포니아주 Palm Springs의 리조트에서 WCNF의 회장단과 회원 총 23명이 친교와 세미나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GMMA(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 리더이신 Dr. David Choi의 "새 시대의 선교 전략", WCNF의 선교자문이신 한기원 목사님의 "WCNF를 향한 하나님의 뜻", 권 오정교수님의 "Health Care in AI"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 날 우리의 굵주린 영과 육은 생수의 말씀과 선교에 대한 정체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그리고, 현재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듣고 WCNF의 앞으로 갈 방향을 잘 Turn up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첫날 개회예배로 시작된 Retreat은, 참가자들의 진지한 대화와 기발한 조별 토의, 때마다 풍성한 식탁과 게임, 바비큐 파티등으로 모두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장단과 주방장으로 정성을 다하신 이영현 재정부장님과 함께 수고하신 다른 모든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기원 목사님: “WCNF의 살 길은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서는 것입니다. WCNF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선교사업을 통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이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WCNF의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WCNF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매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칙을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저의 바람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바로 그 모습이 제 본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창수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는 실제 Case를 가지고 각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셨다. 선교지에서 만날 실제적인 문제 3가지는 “How to make our drinking water cleaner?”, “How to improve our roads condition?”,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of our village?” 이었다. 선교지의 식수문제, 열악한 도로 상황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 인가하는 것 등을 토론하였다. 이때 현지인들의 습관을 존중하며, Empower하기를 강조하셨다. 이 말은 그들의 생각으로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단기 선교팀이 멋진 집을 현지에 지어주고 돌아오는 것과, 현지인들과 의논하며, 어떻게 그들이 집을 짓도록 하는 팀을 예로 드셨다.

권오정 교수님: “현재 인공지능(AI)은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 질병 조기 진단과 임상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의료 환경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 이미 불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Med LM은 병원에서 진료 과정을 자동화하는 AI인데 환자의 과거와 최신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Medical Record까지 처리해 간호사들의 환자 돌봄의 양과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Hippocratic AI 회사는(의료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의료분야에 AI Nurse agent를 시간당 \$9에 제공하는데, Human Nurse (\$50-90/hour)보다 훨씬 싸고,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또한 고객 만족도가 Human Nurse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AI 도입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여 (최근 coding하지 않고 쉽게 온라인에서도 배울 수 있음), 환자와 의료진들과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주 및 해외 신입 비전 및 평생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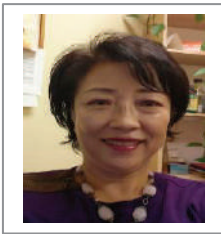
(2023. 11.25 -2024.11. 27)

비전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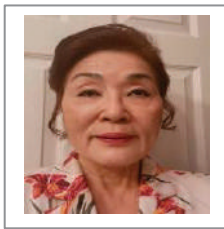
- | | |
|---------|--|
| 71 강정옥 | 국제본부이사 |
| 72 서승렬 | 박혜숙이사 부군 |
| 73 석소정 | UCLA 동문 |
| 74 다니엘박 | 박혜숙 이사 아들 |
| 75 유진박 | 박혜숙이사 아들 |
| 76 유미영 | Korean Women's Association Social Service Director |

평생회원

- | | |
|------------------|---------------|
| 598 Angeles Lee | 고신대간호대동문 |
| 599 황영희 | 청암 간호대 동문 |
| 600 윤정원 | 지산간호대동문 |
| 601 송미옥 | 마산 간호대 동문 |
| 602 Agatha Chung | 최정애 회원 지인 |
| 603 이용식 |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권사 |



76 유미영



598 Angeles Lee



600 윤정원



601 송미옥



602 Agatha Chung

한국지부 신입 비전 및 평생회원

(2023. 11.1. - 2024.11. 30.)

636 김현경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교수
637 김순봉 (전) 인하대학교병원간호팀장
638 유영미 백석대학교 교수
639 신향숙 삼성서울병원
640 유재순 (전) 충북대 간호학과 교수
641 서은희 초당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642 배선이 분당서울대병원
643 이미영 우송대학교 교수
644 이영희 성균관대 임상대학원 교수
645 한숙경 성모요양병원
646 김명자 전북임실군 의원

647 장형은 전북대 교수
648 박영민 전북대 간호대학연구원
649 김윤미 예수대학교 교수
650 정원희 예수병원
651 조문수 (전) 서울대병원 간호과장
652 양승순 (전) 순천향대학병원 간호과장
653 이금문 삼성서울병원
654 조상운 삼성서울병원
655 박찬미 전북대 간호대학교수
656 윤매옥 한일장신대 간호학과 교수
657 이진성 (전) 보건교사



636 김현경 637 김순봉 638 유영미 639 신향숙 641 서은희 642 배선이



643 이미영 644 이영희 645 한숙경 646 김명자 647 장형은 648 박영민



649 김윤미 650 정원희 651 조문수 652 양승순 653 이금문 656 윤매옥

미주 및 해외 지부 후원내역

(2023년 11월 25일 - 2024년 11월 27일 : 단위 \$)

후원교회

성서장로교회 (2,600) 서부열린문교회(2,600) 남가주기쁨의교회(800)
살리나스장로교회(500)

평양과기대간호대학

이갑순(5,000) 마리아권(2,000)

평생회비

황영희(800) 송미옥(800) Angeles Lee(1,000) 윤정원(1,000) Agatha 정(1,000) 이용식(710)
조충자(100) 장혜영(600)

운영지원금

이도윤(5,550) Terry 최(5,500) Ty(2,250) 최재영(3,400) 박민준(3,400) 정지민(3,575)
신용희(1,500) 이일순(300) 노혜련(100) 신지은(100) 장정우(44)

이사회비

Angela 서(1,200) 마리아권(1,200) 스텔라박(1,200) 장정우(1,200) 김명자(1,700) 신지은(1,700)
강정옥(1,300) 이인자(1,200) 박혜숙(1,200) 이영현(1,300) 김연수(1,200) 에즈라김(1,300)
유정숙(1,700) 이일순(1,200) 최은경(1,000) 최윤경(500) 남영주(400) 김혜진(600)

선교후원금

강정옥(5,200) 김선용(10,000) 호주지부(946.80) 조순옥(1,600) Ruth Frendl(2,000) 최진희(500)
서진(500) 성옥경(200) 나민주(200) 홍지나(100) Young L Cho Kim(100) Gina 정(400)
최지예(300) Sue 권(100) 장윤재(1,000) 장말란(200) 권정숙(160) 주디김(700) 전영신(10,000)
박경원(10,000)

지정후원금

성진숙선교사: Christine 서(1,200) Terry 최(550) 올랜도중앙참례교회(7,100) 생수교회(7,700)
손명주(600) 이경식(700) 김명자(500)

라이프간호대학장학금: 신지은(1,200) 성진숙(10,000) 마리아권(1,200) 나정자(1,200)
이인자(1,200) 장정우(300) Brian Kim(200) Acts2 Network(15,000)

초미성선교사: Angela 서(600) 장정우(600) 최윤경(600) 김명자(600) 권상희(300) 제니퍼김(400)
손명주(350)

방영숙선교사: William 박(500) 박애량(100) Dawn Lee(200) 김명자(200) 조순옥(100)
김혜자(50) Angela 서(200) 허옥자(250) 서승렬(500) 강정자(200) 권경아(100) 최윤경(500)
Kristy 심(100) 강옥수(50) Grace 최(100) 박혜숙(200) 박성혜(100) 윤수자(50)

임헌진선교사: 복음의 빛 우림교회(1,000) Angela 서(1,000) 박혜숙(1,000) 박정우(300)
박호순(200) 스텔라박(300) 이인자(500)

이인자이사 남아공선교후원: Angela 서(50) 장정우(50) 마리아권(50) 이영현(50)

서은성선교사 자녀후원: 박혜숙(1,200) 서승렬(2,000)

박순복선교사: 강정옥(10,400)

이갑순교수후원: Blackbaud Giving Fund(5,000)

에즈라김 이사 아들 선교지 방문후원: Angela 서(200) 마리아권(100) 박혜숙(500) 유정숙(300)

과테말라 갈릴리선교공동체: 박혜숙(3,454) Angela 서(625) 한애권(500) 이영현(490)
서복희(1,000) 김명자(500) 조희선(300) 원영식(480) 김홍순(480) 임옥희(480) 임정현(480)
김선애(480) 장정우(490)

이영현 재정위원장: 성서장로교회(500) 성옥경(200)

장검다리 Family camp: 손명주(125) 유미영(4,500)

WCNF 장학금: 박혜숙(10,000)

몽고 장학금: 박혜숙(1,000)

조선의 그리스도인 친구: 박혜숙(1,000)

오은주화선교사: Peter Oh(12,000)

2024 년도 달력대금: 박혜숙(510)

Retreat 후원: 마리아권(250) 이동숙(100) 신지은(100)

콩고 부냐끼리 간호조산대학 장학금:오은경(300) 조영덕(300) 이정미(300) 김유리(300)
권진평(300) 김연수(1,500) 유미영(500) 김경진(600) Bryan Kim(600) 서명룡(1,500) 장덕선(300)
제니퍼김(300) 이경아(300) 우서윤(300) Young S kim(100)오수희(1,000) 양충자(300) Grace
Yun(1,500) Christine 서(300) 최지예(300) 신지은(600) Lisa Mcqueen(300) 박정우(300)
Ki Kim(100) 광정자(600) 임정자(300) 마리아권(1,500) 전영선(350) 박호순(300) 이주경(300)
스텔라최(300) grace Kiem(300) 성서장로교회에스더선교회(300) Sharon chang(1,000) Mary S
Koh(300) En Samo Inc(300) 손종숙(300) Aeran P Garcia(600) 이용식(300) 정혜정(300) Suk H
Moon(300) 김현애(600) 허옥자(600) 윤경애(300) 박성혜(100) Grace 정(100) Cristy 심(100)
전숙인(300) 권상희(300) 서승렬(3,000) Teresa Krause(10,000) 최은경(600) Alice Lee(900)
Susan Suk Nam(300) 강정자(900) Nancy 권(300) 조영숙(1,000) Agatha 정(300)

콩고 초등학교: Daniel 박(10,000) Eugene 박(10,000) 박혜숙(5165)

콩고 조산병원 냉장고: 박혜숙(600)

이송희이사장 Memorial Service 비용: Esther Kim (3,000)

북한선교 고 이송희 이사장님 유가족 (10,250)

한국지부 후원 내역

(2023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30일 : 단위 만원)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기금

권지혜(36) 김경숙(12) 세대로교회(120)
권향숙(60) 김선미(28) 김영미(10)
김윤미(100) 김지순(30) 박금련(50)
박금옥(30) 박영민(110) 박찬미(100)
빈영주(16) 서명희(28) 서수진(22)
성영희(80) 소향숙(65) 양영란(100)
유숙자(70) 윤매옥(100) 이갑순(100)
이미영(50) 이옥주(70) 이인희(8)
이희진(24) 장형은(100) 전인숙(13.5)
정석희(55) 정원희(100)

북한간호사업 재건기금(NKNRF)

고진숙(13) 엄봉순(26)

북한선교지역

故 이송희이사장 유가족 (2,676)

비전화비 김옥인(60) 정정자(18)

옥합회비 신현숙(52)

평생회비

곽수영(100) 김명자(100) 김순봉(10)
김은숙(80) 김하나(83) 김현경(10)
배선이(50) 백규원(90) 서은희(40)
신향숙(40) 양승순(100) 연미향(50)
유영미(64) 유재순(40) 이금문(100)
이미영(100) 이영희(50) 조문수(100)
조상운(100) 한숙경(60)

일반회비

기은정(12) 김양희(30) 김영남(24)
김효경(13) 배강숙(18) 오상준(2.6)
이보영(26) 곽윤아(10) 김민선(6)
김현정(6) 김근영(6) 차미향(11)

임원회비(40/년)

22명 (880)

선교후원

강명미(26) 강명희(13) 권인각(12) 김경순(26)
김귀자(13) 김경은(2.3) 김대희(12) 김수희(6)
김신혜(13) 김영아(26) 김영희(13) 김양남(6)
김진숙(10) 김현주(13) 민자경(13) 박인혜(30)
박금실(28) 반신자(13) 서강유(9) 서정윤(9)
안춘지(13) 오경화(26) 오유미(11) 오은경(12)
우소희(1) 우진경(26) 이두임(9) 이정옥(39)
이정희(30) 장말란(27) 전은경(39) 조은희(60)
최동희(10) 한선규(12) 황국희(7) 황옥남(105)
대한기독교간호사회(12) 부산기독교간호사회(30)

지정후원금

이영현 본부재정담당 서울 늘푸른침례교회 (20)

임헌진선교사 이은옥(100)

징검다리(단체) 강정옥(200)

총회및 선교세미나 지원

강채원(20) 이은옥(10) 최정숙(70)

간호대학생 장학금

김덕천(500) 서동희(100)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장학금

양혜리/이우일(60) 유수옥(10) 최선옥(540)

콩고 부냐끼리 간호조산대학 학생후원

김현주(40) 박은숙(40) 성일순(40)
심영순(80) 이영혜(80) 이정희(40)
이병숙(40) 조정희(40) 정정희(40)
최순덕(40) 최정숙(10) 황옥남(40)
황옥주(40)

*각 지부는 지역별 지회나 분야별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WCNF 본부 및 각지부

국제본부		USA 지부		한국 지부	
1946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01) (424) 426-5435 - wcnfusa@gmail.com - http: www.wcnfusa.org		- Missouri 이(문)광자 - North Carolina 김연수 - New York 전화연 - Ohio 이명숙 - Rhode Island 이(김)영옥 - San Francisco 김혜련 - Texas, Dalas 최영숙 - Texas, Austin 남영주 - Texas, Houston 조상수 - Uni, Virginia 강정옥 - Washington 김지니		우) 066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 길 30 센츨리 오피스텔 910 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02) 764-1227 - wcnfkorea@hanmail.net - https: www.wcnfkorea.org	
총회장	안젤라 서			회장	성영희
부회장	마리아 권			감사	정정자, 김현옥
부회장	장정우			1 부회장 (교육위원장)	이병숙
부회장	Stella Park			부회장 (회계)	이은숙
사무총장	김명자			부회장 (선교위원장)	최정숙
감사	신정수, 이일순			부회장 (국제본부교육위원)	황옥남
상임이사	강정옥, 김연수, 남영주, 박혜숙, 신지은, 이영현, 이인자, 에스라김, 유정숙			부회장 (PUST 간호대설립부위원장)	소향숙
				이사 (PUST 간호대 설립위원장)	유숙자
				이사 (재정위원장)	김경숙
				이사 (홍보섭외위원장)	이혜란
				이사 (NKNR 위원장)	박언아
				이사 이홍자, 정미아, 박승미, 박희옥, 서동희, 안미향, 양영란, 장말란, 전은경, 최은숙	
USA 지부		호주지부		지회	
Alabama	채정자	5019 Australia Avenue Sydney Olympic Park, NSW2127 Australia (+61) (417) 122-355 - wcnfaustralia@gmail.com		서울지회장	강윤숙
Boston	조종희	회장 천옥영		경기지회장	오진희
CA, North	김복상	부회장 김미표		인천지회장	김지윤
CA, San Jose	이일순	회계 오미숙		강원지회장	서임선
Florida	홍찬길	서기 오가영		충남지회장	강현숙
Georgia	안옥자	고문 최부옥		충북지회장	한명자
Hawaii	서지자			대전지회장	김현주
Indiana	정귀남			대구지회장	박희옥
Illinois	이(최)순자			전남지회장	오향순
Maryland	양(권)윤자			전북지회장	양영란
Michigan	홍(남)문숙			광주지회장	김정미
				부산지회장	장말란
				보건진료원회장	한명자
				보건교사회장	이석희
USA 지부		캐나다 지부			
		회장 곽나미			
		Toronto 송신자			
		Vancouver 최영자			
독일지부					
		회장 김연숙			
뉴질랜드 지부					
		회장 조영옥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제 13 차 정기총회 및 선교대회

일 시 2025 년 2 월 3 일(월) - 6 일(목)
주 제 " 선교, 하나님의 기쁨 " (이사야 62 :4)
장 소 호주, 시드니
일 정 2 월 3 일 오후에 등록 및 개회하여 6 일 까지
총회와 선교 대회 및 1 일 TOUR 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월 7 일 부터는 개별일정이 가능합니다.

제 13 차 WCNF 정기총회 참가 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C.P.
소속 지부	미국() 한국() 호주()		e-mail
문 의 처	미국 wcnfusa@gmail.com / 한국 wcnfkorea@hanmail.net 호주 wcnfaustralia@gmail.com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재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ristian Nursing Foundation 통권 제 58 호/ 2024 년 12 월 발행/ 발행인: 안젤라서

<미주지부>

1946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424) 426-5435 안젤라서 총회장 CP. 949-933-1287(국가번호 +1)
E-mail: wcnfusa@gmail.com http: www.wcnfusa.org

<한국지부>

(우) 066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 길 30 센츄리 오피스텔 910 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EL. (02) 764-1227 Fax. 02-764-1252 성영희 회장 CP. 010-9933-2901(국가번호 +82)
E-mail: wcnfkorea@hanmail.net https: www.wcnfkorea.org

<호주지부>

5019 Australia Avenue Sydney Olympic Park, NSW2127 Australia
Tel. (411) 879-778 (국가번호 +61)
E-mail: wcnfaustralia@gmail.com